

36 차 서울의대 미주총동창회 학술대회에 다녀와서

서윤석(68 년)

지난 2019 년 3 월 20 일부터 3 월 24 일까지 Pacific Palms Resort, City of Industry, CA 에서 36 차 학술대회와 동창회 모임이 있었다. 서울에서 홍정용 총동창회장과 신찬수 학장, 서창석 병원장과 모교 교수들 여러분들이 먼길을 왔으며 미주전역에서는 Maryland 에서 온 세계적인 학자이며 가장 연장인 57 년 졸업한 임종식교수로 부터 가장 연하의 강사로는 2009 년 졸업한 Virginia Chapter 의 송경민 동문을 포함하여 2018 년 졸업한 신상하 동문등 부부 총 140 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틀에 걸친 Non CME 교양 강의와 Medical Scientific Lectures 가 3 일에 걸쳐 있었으며 매일 저녁 Banquets 이 열렸다. Banquet 에서는 젊은 서울음대후배 동문들이 Violin, Piano, Cello 등을 멋있게 연주하여 저절로 그 친근한 곡이 청중들의 입에서 따라 나오게하는 아름다운 Classical 음악을 선물했다. 다채로운 여흥과 댄스, 친목으로 뜻 깊은 Dinner 모임은 밤 11 시까지 계속됐다.

행사중에 모교 신찬수 학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제 5 회 를 맞이하는 미주함춘공로상에는 우리의 동창회의 보물과 같은 신문인 시계탑의 편집장으로 11 년간 수고한 김병석(59 년 졸업), 34 대 미주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한 최준희(64) 그리고 44 대 미주총동창회장으로 또 현재 시계탑편집장으로 일하는 서윤석(68), 이 세 동문들이 수상을 했으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500 만원(약 미화 4,500 불)씩이 수여되었다. 5 년전에 시작된 이 미주함춘공로상은 모교 의대학장과 그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서울에서 해마다 동창의 날에 수여되는 동아의학상을 비롯한 함춘의학상의 선정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해야되기 때문에 강대회 전 학장 때인 5 년전부터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작했다. 따라서 이 영예로운 공로상은 수상대상이 동창회발전에 기여한 미주동문에만 국한된다. 1 회에는 이만택(58), 2 회에는 김의신(66), 조세진(69), 시계탑편집회전체, 3 회에는 노용면(55), 이희경(61), 정정수(62), 제 4 회에는 임종식(57), 한기현(63), 김성환(71)동문이 수상했다.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상금을 모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도서관 건축기금이나 장학금,미주 동창회기금에 기부했던 것으로 기록된다.

이어서 영예의 제 2 회 학장상에 오무연(89) 동문이 수상했다. 1 회에는 김원정(75) 동문이 작년에 수상했다.

또한 정균희 회장이 한승신 전 회장, CME 담당 하여 온 신규호 박사와 주광국 재무등 전 46 기 회장단에 또 이번에 기부금을 많이 낸 차민영 동문에게 드리는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비가 계속되던 기후관계와 숫자는 많지만 기동력이 점차로 연로해가는 남가주 지역 동문들의 건강상 이유로 저조했으며 축소된 인원만 참가한 골프대회는 미미했다. 컨벤션 후의 여행도 지망자가 저조하여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학술대회가 이번에 주최측의 노력과 GP Fund 의 도움으로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빛을 보았다. 수년전 이를 예측했던 서인석 43 기 미주총동창회장이 시작한 젊은 동문(Green Project)들에 대한 애정과 그후의 여러 회장들과 특히 46 기 한승신 미주총동창회장과 그의 부인이자 동문인 김정아님의 물심양면의 희생으로 이번에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점이 우리 동창회가 추구해야될 앞으로의 방향일 것이다.

외부 강사로 여러분이 왔는데 그중 12 대 전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장 오인환 박사의 한국인의 Think Tank 강의가 있었으며, Stanford 대학병원의 Samuel So 교수가 Hepatitis, Hepatic Cancer 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미국내의 Asian Population 에 대한 차별적 문제점,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때 당면한 미국내의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설명했다. 법을 개정하거나 보험회사의 변화를 얻기는 힘들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즉 CDC 혹은 지역사회와 환자나 의사들의 계몽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경험담을 그는 이날 제시했다. 그는 또한 아직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중년층 이상의 아시아사람들의 Hepatitis 스크린으로 보균자들의 색출과 치료, 일반 인의 예방접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화내과 전문의인 Stanford 의 Joo-Ha Hwang 교수의 Stomach Cancer 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강연과 대답은 아주 유익한 것이었으며 그 대답을 이끌어간 남명호(81)동문의 유창한 영어와 리더쉽이 눈에 띄었다. Healthcare Innovation 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춘 송경민(09)을 비롯한 서귀숙(84)박사등 여러 동문들의 강의를 참 놀랍고도 좋았고 젊은 동문들이 참석하기 쉽게 마련된 24 일 일요일 아침에는 Banquet 처음에 교기를 들고 입장했던 MGH 의 박종철(99)을 비롯한 여러 강사진들의 질병에 대한 연구발표와 의사로서 미국에서 개척해나가야 하는 힘든 Career 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선규(89)가 이번에 Scientific Chair 의 중임을 맡고 수고했다.

참고로 이번모임에서는 AASCDTF(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Disease Task Force)이 중요한 의제였으며 임종식(57), 박찬형(62), 한승신(76), 김정아(76), 남명호(81)이 그 구성원이며 앞으로의 그 활동과 노력이 우리 미국 아시아 사회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일반 은퇴한 동문부부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NonCME에서는 직업 사진사를 능가하는 나두섭(73)편집위원의 사진이야기. 이원택(71)시인이자 정신과의사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정신분석, 서윤석(68)의 시계탐과 글(시)쓰기 그중에 소개된 젊고 멋있는 John F Kennedy 대통령이 1963년 9월 Amherst College의 Robert Frost Library 기공식에 참석하여 시인, 화가, 음악가와 같은 예술가 끼치는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을 말한 그의 마지막 연설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연설을 한지 두 달 후에 그는 달라스에서 총을 맞고 저격된 것이다. 이성길(71)의 마리화나의 근래상황이 소개되었다. 아직 생소한 이 의학적 현실을 잘 설명했다. 이어서 시카고에서 온 박종희(75) 동문이 2003년 무렵에 시작한 시카고의 세종문화행사의 일부인 정형시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평시조를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에게 영어로 세 라인(줄)과 미터(음절) 형식에 맞게 쓰게한다.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로도 가사를 작곡하여 관심을 이끌려는 특이한 문학사회운동을 소개했다. 이것은 미국사회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교환하는 의미가 깊은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참여하는 그들(특히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한국말을 배우게되고 한글로도 시조를 쓰고 감상하는 일도 생기게 되기를 기대한다. 온기철(71)의 청과 조선의 멸망, 최도빈 교수(박은경 편집위원의 부군)의 조선 후기의 회화가 좋았고 해마다 시계탐에 신년 삼화를 그려주고 이제는 유명한 인물화가로 잘 알려진 우리 김명원(68)화백의 피카소의 Inspiration와 여인들에대한 강의가 재미있었다. 80이 다된 나이에 아메리카 대륙을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의 돌을 찾아서 평생 다닌다는 신선과 같은 손영진(62)동문의 수석 壽石 강의가 눈길을 끌었고 또 온기철(71)역사학자의 일제 강점기의 중국과 한국,해방정국에 대한 내용은 또다시 많은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안병일(69) 동문이 우리의 은사인 방사선과 한만청교수의 “암과 친구가 되라”를 3년에 걸쳐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으며 그 소개가 있었다. 이 책 “Befriending with Cancer”을 이 기간중에 Front Desk에서 구입할 수있었으며 이 영어판이 미국에서도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 읽혀지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36차 학술대회는 성공적인 또하나의 모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여러가지 우려 속에서도 유유히 유모어를 잃지 않은 정균희 회장과 그 임원들, 동창회 사무장 Mrs. Jamie Kim 내외분과 누구보다도 이번 컨벤션 의장으로 불철주야 애쓴 김성환 전회장 내외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제 36 차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학술대회 참가 동문